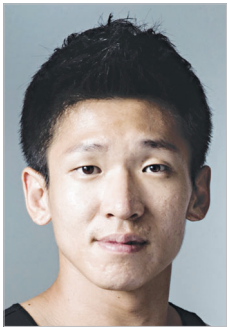


야속한 바람…김국영 비공인 한국신 타이

고성통일 실업육상 남자 100m
준결승 10초07·결승 10초15
대회신 우승…내달 경기 준비

이번엔 야속한 뒷바람이 불었다. 광주시청 김국영(31)이 자신이 보유한 육상 남자 100m 한국신기록 타이기록을 세우고도 풍속 초과로 기록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국영은 6일 강원도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

대회 남자 100m 준결승 1조에서 10초07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6월 27일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자신이 수립한 한국신기록과 같은 기록이다. 하지만 김국영의 레이스 당시 뒷바람(초속 2.3m)이 불었다. 100m에서는 바람이 초속 2.0m 이하가 돼야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준결승 기록은 ‘비공인’ 이 됐다. 김국영은 결승에서 다시 한번 기록에 도전했으나 이번에는 출발이 좋지 못했다. 김국영은 10초15로 피니시라인을 통과, 대회신기록 우승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김국영

김국영의페이스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바람만 도와준다면 한국신기록은 물론 한국육상의 꿈인9초 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국영은 지난달 2일 제50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에서 기록 경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23일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10초17을, 그리고 26일 일본에서 10초09를 뛰었다. 김국영은 일본 돗토리현 야마다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후세 테오 스프린트 남자 100m 예선 4조에서 10초09의 한국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당시 풍속은 1.2m였다. 김국영은 집중력을 높였다. 바람과 스타트, 중반 레이스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다시 한번 한국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준결승에서 기록을 인정받지 못해 결승레이스를 노렸으나 기록은 좋지 못했다. 김



조코비치 승리 세리머니 노바크 조코비치가 6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론테니스클럽에서 열린 윌블던 남자단식 8강전을 마친 뒤 비행하는 듯한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조코비치는 아년 시너를 3-2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AP=연합뉴스

광주FC K리그2 ‘승점 50’ 고지 선점

아론·엄지성 골…부천에 2-1

광주FC가 4경기 연속 무승에서 탈출, K리그2 11개 팀 중 가장 먼저 ‘승점 50’ 고지를 밟았다. 광주는 지난 5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5라운드 부천FC와의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승점 3점을 쟁긴 광주(승점 50·15승5무3패)는 선두를 굳게 지켰다. 같은날 안산에 승리를 거둔 2위 대전(승점 41·11승8무4

패)과의 격차도 ‘9’로 유지했다. 3-4-3포메이션으로 나선 광주는 마이키, 허을, 엄지성이 최전방에 섰고, 중원에는 이상기, 김종우, 이순민, 이으뜸이 출전했다. 수비는 아론, 박한빈, 안영규가, 골문은 김경민이 지켰다. 광주는 이른 시간 아론의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12분 왼쪽 프리킥 때 이으뜸의 왼발 크로스를 아론이 오른발로 밀어 넣어 부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아론의 K리그 시즌 데

뷔골이다. 이으뜸은 시즌 6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는 엄지성의 추가 골로 격차를 벌렸다. 전반 27분 마이키의 패스를 받은 엄지성이 오른발 중거리포로 2-0을 만들었다.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경기 주도권을 가져온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산드로, 헤이스를 투입했다. 후반 14분 이으뜸의 크로스를 받은 산드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높이 뒀다. 1분 뒤 산드로와 헤이스의 연속 슈팅도 골대를 아쉽게 빗나갔다. 압도적이었던 전

반과 달리 후반 부천의 공세에 시달리던 광주는 후반 34분 실점했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안영규와 박창준이 쓰러졌고, VAR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돼 1골을 내줬다. 추격을 허용한 광주는 추가 골을 위해 부천의 골망을 노렸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후반 38분 헤이스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력한 왼발 슛을, 42분 산드로가 오른발 슛을 때렸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45분에는 산드로가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한 공이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다. 추가득점은 없었으나 실점도 허용하지 않은 광주는 오랜만에 승리를 쟁겼다. /조혜원 기자

국영은 준결승을 마친 뒤 아킬레스 통증을 느꼈고 결승레이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은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팀 소집 일정도 있다. 8월 22일 일본에서 A급 선수들만 출전하는 대회에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8월30일 익산에서 열리는 실업육상경기чем피언십대회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청 박서진은 여자부 해머던지기에서 우승했다. 1차에서 58m06, 3차에서 56m76을 기록한 박서진은 1차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54m31을 기록한 김휘수(음성군청)가 차지했다. 여자부 5,000mW에서는 여주시청 이세하가 23분28초80을 기록, 이보람(대구시청 24분21초79), 오지현(화성시체육회 24분26초00)을 제치고 우승했다. /최진화 기자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 김혜리가 6일 파주 NFC에서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대비 첫 팀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여자 축구대표팀 담금질 동아시안컵 ‘우승 도전’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나서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17년 만의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지난 5일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한 대표팀 선수 23명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첫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민아(인천 현대제철)도 훈련장 구석에서 별도 재활 훈련에 매진했다. 최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은 엔트리를 26인까지 확대한 만큼 대표팀은 추가 선수 발탁도 검토하고 있다. 동아시안컵 여자부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가시마에서 열린다. 한국과 개최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대만 등 4팀이 풀리그를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9일 일본과 첫 경기를 시작으로 23일 중국, 26일 대만과 차례로 맞붙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막 이대호 은퇴 투어 시작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의 행사 계획이 확정됐다.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의 발표를 보면, 올스타전은 오후 3시 팬 사인회로 막을 올린다. 잠실구장 외야 잔디에서 진행되는 팬 사인회는 예년보다 운영 시간을 확대해 많은 팬이 보다 여유롭게 사인을 받고 포토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KBO 사무국은 12일까지 올스타전 예매자를 대상으로 120명을 추첨해 1인 2매씩 총 240명에게 팬 사인회 참여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3일 KBO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팬 사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구장 밖 팬 페스트 존에서도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다. 팬 페스트 존에 설치되는 ‘메이스트볼 5’ 경기장에는 드림·나눔 올스타 4명의 선수가 참가해 팬들과 함께 미니 게임을 체험한다. 오후 6시 개막하는 올스타전의 클리닝 타임 종료 후에는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의 은퇴 투어가 그라운드에서 시작된다. /연합뉴스

“모든 구종 자신…공격적 투구 하겠다”

KIA 파노니 오늘 KBO 데뷔
“양현종 피칭 보며 배울 것”

“모든 구종에 자신 있다.” 7일 KBO리그 데뷔를 앞둔 KIA 새 외국인투수 파노니(28)가 자신의 최고 강점을 ‘구종 부자’라고 꼽으며 자신감을 보였다. 파노니는 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KT전을 앞두고 “직구, 슬라이더, 커터, 커브 모두 자신있다. 올해 슬라이더를 처음 배웠는데 커브보다 더 잘 던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입국한 파노니는 5일 비자

발급을 받은 후 선수단에 합류했다. 파노니는 “KIA에 입단해 매우 기쁘다. 기회를 주신 구단에게 감사드린다. 미국에 있을 때도 KBO는 좋은 리그라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커리어를 더 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상견례를 했는데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다. 특히 포수 박동원이 먼저 다가와서 피칭스타일과 패턴을 많이 물어봤고 서로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즈 크랜스톤 출신인 파노니는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을 뛰었다. 파노니는 “KBO리그를 특별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없을 때 많이 봤다. 한국 선수들은



파노니

심이 있는 스타일이어서 도망가지 않는다. 항상 공격적인 투구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KIA는 양현종과 이외리, 놀린에 이어 새 외국인 투수까지 왼손 투수를 선택하면서 선발 4명이 좌완이 됐다. 파노니는 “양현종의 경기를 보면서 그의 피칭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SSG의 윌버 폰트, KT 앤서니 알포드

경쟁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도경쟁심이있고항상이기는야구를추구하기때문에동기부여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등판할때마다 불독처럼싸운다.경쟁심이있는스타일이어서도망가지않는다.항상공격적인투구를추구한다”고강조했다. KIA는 양현종과 이외리, 놀린에 이어 새 외국인 투수까지 왼손 투수를 선택하면서 선발 4명이 좌완이 됐다. 파노니는 “양현종의 경기를 보면서 그의 피칭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SSG의 윌버 폰트, KT 앤서니 알포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파노니는 팀 동료인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지난 2019년 토론토에서 시즌을 함께 보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4년 만에 만난다. 어느정도 친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파노니는 입국하기 전 우스터에서 치른 마지막 등판 경기에 대해 “6이닝 동안 92개의 공을 던졌고 무실점 피칭을 펼쳤다. 불넷을 허용하지 않아 고무적이다. 최고구속은 시속 92마일(약 148km)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KIA는 인기구단으로 안그래도 팬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 최대한 내 능력치를 팬 앞에서 보여주고 싶다.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하면서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파노니는 7일 KT전에 선발 등판한다. /조혜원 기자